



K-그리드,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 시동

- 에너지정책실장 주재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 개최
- 정부·EPC·기자재기업간 연대·협력 본격화… 발전소-전력망 패키지 수출 모색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2월 4일(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전체회의로, 글로벌 시장의 대규모 전력(인프라) 수요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 포괄

산업부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24.12.3) 이후 수출지원기관 및 업계와 협의해 '25년 수출 진작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우선, 무역보험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중인 변압기, 전력케이블 등 수출기업 단기보험 한도 우대(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을 올해도 지속 제공하고, 지원 품목을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전력망·기자재 관련 해외 전시회를 산업부·전기협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 운영·관리함으로써 참여기업 모집-홍보-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는 한전, 남부발전, 현대건설, LS일렉트릭, 전기협회 등 총 15개 기업·기관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노후 전력망 교체, 가교 전원인 가스발전소 구축,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을 기회로 '발전소-전력망 통합 패키지 수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 기업의 검증된 설계·조달·건설(EPC)·기자재 제조 역량과 한전의 계통 건설·운영 기술 등을 결합해 현지의 복합적인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사업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다.

이호현 실장은 “K-그리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국가 전력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라며, “공기업이 이끌고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팀코리아 체계를 통해 K-그리드를 원전을 잇는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팀 장	정민규 (044-203-3885)
			사무관	이가영 (044-203-3887)



참 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5.2.4(화), 14:00~15:10 /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6F)
- (참석자) 산업부, 전력공기업, EPC·기자재기업, 수출지원기관 등
 - * 간사기관 : 대한전기협회
- (산 업 부) 에너지정책실장, 전력산업정책과장
- (공공기관) 한전, 남부발전,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전기연구원
- (민간기업) ^{EPC}현대건설, GS건설, ^{기자재}두산에너지빌리티,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LS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등 9개사
- (일정) 전문가 발제, K-그리드 전략 후속조치 점검, 협력과제 발굴 등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전기협회
14:02~14:05	3'	• 모두발언	에너지정책실장
14:05~14:20	15'	• [세션 1] 글로벌 그리드시장 동향 및 전망	이화여대 허진 교수 (기후에너지공학)
14:20~14:35	15'	• [세션 2] K-그리드 전략 과제이행 점검 및 향후계획	
		- 종합(3')	전기협회
		- 시험·인증(4')	전기연구원
		- 무역보험(4')	무역보험공사
		- 마케팅(4')	코트라
14:35~14:45	10'	• [세션 3] 국제협력 과제 발굴	
		- 전력망(3')	한전
		- 가스발전(3')	남부발전
		- 가스터빈(4')	두산에너지빌리티
14:45~15:10	25'	• 애로청취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체

※ 모두발언까지 공개